

용서 고린도후서 2:1-11

우리가 잘 아는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아무 재료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내용을 알고 있다. 주인이여,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데서 거두심을 안다고 하였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인간은 아무도 심지 않은데서 거둘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 않아도 거둘수 있다. 아무 재료 없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 알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 한마디로 인생 끝낼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어느날 발견되어서 나에게 언약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 인도 받는다. 말씀인도가 성령인도이다.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다. 성공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 바란다.

1. 용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고린도전서 설교할때에는 많은 부분 넘어갔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복음안에서 넘어설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뿐 아니라 부족함에 대한 책망도 많이 했다. 그 교회는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교회였다. 더 심한 것은 이방인도 안하는 음행이 그 교회에 있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고 있냐고 강하게 이야기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나 방언 문제들도 있었다. 또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시장에 파는데, 그것을 먹어도 되냐 안되냐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데 대해서 답을 주면서, 고기가 하나님의 고기인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우상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답이 안 난 사람도 있어서 그런 고기 먹으면 시험들 수 있으니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안 먹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때로는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이다. 특히 음행이나 당을 지은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들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보다 2년 후에 보낸 것이 고린도후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음행에 관한 지적을 받은 사람에게 한 말 같은데,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하고 하였다. 너무 근심에 잠길까봐. 단수로 표현이 된 것으로 보면 음행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람에게 말한 것 같다. 그리고 8절에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깐, 그 외 모든 사람들, 그 외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볼수 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것을 썼다고 하였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교회는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개척한 교회이다. 그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나니,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 소식을 너희로부터 들었을때에, 놀림과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넘치는 사랑이 있으니깐 내가 눈물로 그것을 쓴 것이라고 하였다. 너희들에게 근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용서하라, 그런 뜻이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함께 가고 오히려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끝까지 오늘도 용서하신다. 이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주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도 극적으로 살아났다. 예수님의 용서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살아났다. 이 예수님의 권세가 없었다면 돌을 들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졌겠는가? 우리는 이런 권세 있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사단은 절대 건들지 못한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어는 모두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권세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사단이 절대 손대지 못하는 완전한 자유가 하나님의 용서인 것이다.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도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용서하면 자기가 먼저 살게 되어 있다. 이 유가 무엇이든 용서 안하면 자기가 죽는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먼저 산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살린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커지고 깊어진다. 당연히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너희가 무슨 일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냥 용서하는 것, 그것만도 귀하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유를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다고 하였다. 11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왜냐면 사단이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바른 말을 해도 용서하지 않고 대립하면 결국 사단의 목적만 이루어진다. 둘다 속고 둘다 죽는다. 그런데 용서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산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축복하신다. 때로는 틀린줄 알면서도 용서한다. 분명히 거짓말이다. 그런데 넘어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단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수는 없다. 넘어서야 한다. 넘어서지 못하고 그 감정에 잡혀서 이것을 못 넘어서면 안된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다. 니가 죽으면 니가 살것이라고 하였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 나를 살려서 하나님 따라가면 힘들다. 결국 내 마음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더러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는자가 살고 승리한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고 위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물론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만 함께 가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 사람의 길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에서 용서는 하지만 따라갈 수는 없다. 당연히 그 때에도 용서하고 품고 기도해야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가 말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다르다면 따라가면 둘다 죽는다. 이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초월이다. 넘어서야 한다. 때로는 그냥 두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야 할 경우도 있다. 이것이 둘다를 살리는 길이다. 한 사람의 생각을 고치려고 평생을 소비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도 더 빠른 길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야 한다. 대개 이런 길에 있는 사람은 보면 영적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가 안된다. 하나님이 고쳐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더 이익이 된다. 물론 너무나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한마디로 다 아우르는 설명을 할 수는 없다. 여하튼 사도바울의 말씀은 나는 그를 용서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는 것이다.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라. 육신적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을 살려 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이 사명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내 대신 내가 죽을테니까 너도 죽어서 사람을 살려라. 생각만 하지 말고 언약이 되어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길,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된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가야 한다.

2. 제자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12-13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주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심령이 편하지 않아 그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이다.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한명, 만나러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다. 보통의 전도자들이면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는 말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면 그 사역에 열중한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13절의 내용들이 마음에 잘 안들어왔다. 사람들을 여기에 두고, 제자 한명을 찾으러 배 타고 바다 건너 갔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이다. 디도는 디모데와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제자이다. 아주 핵심제자이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디도에게 보낸 편지도 있다. 거기 보면 목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로마서등에 기록된 많은 제자들은 중직자 제자들이다. 디모데와 디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 같은 제자이다. 아마 디도에게 목사로 사역할 만한 강력한 무엇을 본 것 같다.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러 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다. 물론 교역자가 중요하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지만 교역자가 중요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목사가 되면 최고로 먼저 축복을 받는다. 남자 여자, 나이 관계 없다. 복음에 진짜 답이 났느냐가 근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느냐가 두 번째이다. 중직자도 능히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길을 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결심하고 목회자로 나선 사람은 다르다. 이것이 직업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아버지는 목회가 이상한데, 아이들은 잘 되는 집이 있다. 중직자 중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목회자중에도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아버지가 고생했더니 아이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곤 한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되지도 않는 목회를 놓고 울고 불고 하는 이것이 점수를 받는 것이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하고 다른 면이 있다.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제자가 뭔가가 눈에 들어온 사람이다.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름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를 계속 붙이셨을 것이다. 역사는 깨달음에서 나타난다. 응답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렇구나 눈 열렸을 때, 내 노력과 상관 없이 오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오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생각이 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이 무한정 축복을 해도 괜찮은 준비가 된 사람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한다. 성경적 전도 전략, 조직 전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섯 기초가 근본이고 20가지 전도전략이다. 남미에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는데, 그냥 가서 메시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다. 우리하고 연결된 아주 남미의 중요한 목사님들 중에 오늘 리카르도 목사님이 오셨고, 호세 야스, 이스라엘 목사님이 리더격이다. 이스라엘 목사님은 뒤에 들어왔는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보낼만한 현장에 보낼만큼 준비가 되었다. 이 분이 멕시코 남부지역 어디서 컨퍼런스 하는데, 그 때 여기 LA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목사가 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운동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그 목사님과 나눈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기 와 있

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식사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어떤 미국 복음화, 100교회의 중요한 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리카르도 목사가 금요일 저녁에 일부러 올라왔다. 거기 참여해서 대화하고 그럴려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목사와 후안 목사에게 이 소식을 우리 교회에서 전해달라 했는데, 스케줄이 안되는 것이다. 이 후안 목사가 샌 페르난도 벨리 지역의 리더 목사이고, 그 지역은 팜데일까지 커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눈이 열리기 바라는데, 그래서 제자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그래서 리카르도 목사가 통역을 했다. 만일 지속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하였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메시지를 나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유는 제자가 안 나오기 때문이다. 그냥 듣고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안 나온다. 그 중에 제자가 있다. 리카르도 목사와도 대화를 하는 중에, 마약 29년동안 했던 리카르도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날 끊어져서 나와서 살다가 다시 한번 해블러고 마약을 맞아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깨닫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밑에 제자가 3명이 붙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번쩍 들어왔다. 그러면 폭발 일어날 수 있다. 예전에는 나도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은 제자를 위해 놔두고 바다 건너서 갔다. 그런데 또 한사람 제자 들어온 소식을 리카르도 목사가 이야기 했다. AA에서 24군대를 관리하던 사람이 연결되어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알콜 중독자 모임. 예전에 아리조나에 감옥에서 나와서 잠시 여자들이 머무는 쉼터에서 헌신하며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을 만난적이 있다. 이 분은 백인이었는데, 무슨 단어가 그렇게 많으면서 갔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름을 계속 붙여야 한다. 누리는게 세밀하면 표현하는게 계속 늘어난다. 대충하면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는 것이다. 세밀하게 하면 자꾸 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해도 안되고, 영어가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보고 이야기 하기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찾아라. 중요한 문이다. 그런데 이 분들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한다. 백인의 특징인지 모르겠다. 복음 전하면 댕지 하면서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바보인가? 복음만 전하면 되면 바울이 바다 건너 갔겠는가? 성경적 전도는 죽어도 안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복음화 렘넬트 운동, 남미, 못한다. 그래서 리카르도 목사에게 제자가 세명 붙었다니까 눈이 번쩍 뜨였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기도하고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인데, 바울은 디도를 찾으러 갔다. 한명을. 한명을 못 만나서 사람들이 많은데도 근심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문이 열려 있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제자의 중요성에 대한 눈이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제자이면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눈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사상이다. 우리도 이 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성경에 썼다. 베드로도 전도했다. 베드로 전도 이야기는 성전 미문에 있는 거 말고는 거의 없다. 결국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를 정복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 방법에 우리의 눈이 맞아야 한다. 내용이 있고 전략이 있다. 여기에도 눈이 맞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전도를 우리가 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같으면 오늘 12-13절 생각도 안하고 지나 갔을 것이다. 깊이 각인되어 체질되기 바란다. 그리고 망대같은 사상이 되기 바란다. 왜 제자 제자 하는가? 제자 없으면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갈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전도를 제자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였다면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제자는 하나님의 전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전도에 함께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